

UAE원전 2호기 송전계통 연결 성공 상업운전 중인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송전계통 연결로 UAE 내 안정적 청정 전력 공급에 기여

UAE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9월 14일 UAE 바라카 원전 2호기가 UAE 송전망에 최초로 계통연결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송전 계통연결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 및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2호기는 이번 송전 계통연결을 통해, 지난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1호기와 함께 UAE내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호기 최초임계 후 약 2주만에 계통연결까지 성공한 것은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 4호기와 UAE원전 1호기의 모든 경험을 반영한 결과이다.

UAE 바라카 원전 2호기는 이후 단계별 출력상승시험과 성능보증시험 등 최종단계의 시운전 시험을 마치고 향후 수개월 내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승일 사장은 UAE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Team Korea 사장단과 함께 지난 9월 7일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상업운전 중인 1호기 및 2호기의 출력상승시험, 3, 4호기의 시운전 공정을 독려하면서 후속호기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현재 3호기는 운영을 위한 계통 인계 등 잔여 시운전 시험을 수행 중이며, 4호기도 발전소 고온기능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금번 2호기 송전 계통연결을 시작으로 원전 2개호기 동시 운영을 통한 UAE내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또 한번 내딛었으며, 향후 한-UAE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KMIF**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협의

바라카 원전 포함, 원자력 분야 양국 협력 이행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협의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나세르 알 나세리 UAE 바라카원전 최고경영자가 한-UAE 원자력 협력 분야 양국 간사간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9월 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나세르 알 나세리(Nasser Al Nasser) 바라카원전 최고경영자와 함께 한-UAE 원자력 협력* 분야 양국 간사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UAE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2차관과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2018년 출범에 출범한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

- 제1차 (2018.11월, 서울), 제2차 (2019.11월, 아부다비), 제3차 (2020.11월, 화상) 회의 개최
-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UAE 바라카원전 CEO가 고위급협의회의 간사이며, 간사간 협의를 통해 차기 고위급협의회 개최전 양국간 협력 진전 사항을 점검

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한-UAE 원자력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차기(제4차) 고위급 협의회를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회 산하 3개 실무그룹(①바라카 원전 협력 및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②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③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별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일 기획관은 금번 UAE 방문 계기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박일 기획관은 금년 4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2호기도 내년도 수개월 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원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 양국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바라카 원전(총 4기) 사업 진행 현황

- 1호기 : 2017.10월 건설 완료, 2021년 4월 상업운전 개시 후 전력 송출중
- 2호기 : 2019.12월 건설 완료, 내년도 수개월 내 상업 운전 개시 목표
- 3호기 : 2021년 7월말 기준 95.8% 건설 완료
- 4호기 : 2021년 7월말 기준 91.4% 건설 완료

박일 기획관은 또한 2019년 개소한 원자력 R&D 센터(에미리트 원자력 기술센터, ENTC, Emirates Nuclear Technology Center)도 방문, 한-UAE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KIIF*

제2차관,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 축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24일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종문 차관은 동북아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세종연구소 및 한국핵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협력 현황과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역내 다자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진전시킬 정부당국자와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 및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KIIF*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일 기획관은 금번 UAE 방문 계기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박일 기획관은 금년 4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2호기도 내년도 수개월 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원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 양국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바라카 원전(총 4기) 사업 진행 현황

- 1호기 : 2017.10월 건설 완료, 2021년 4월 상업운전 개시 후 전력 송출중
- 2호기 : 2019.12월 건설 완료, 내년도 수개월 내 상업 운전 개시 목표
- 3호기 : 2021년 7월말 기준 95.8% 건설 완료
- 4호기 : 2021년 7월말 기준 91.4% 건설 완료

박일 기획관은 또한 2019년 개소한 원자력 R&D 센터(에미리트 원자력 기술센터, ENTC, Emirates Nuclear Technology Center)도 방문, 한-UAE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KIIF**

제2차관,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 축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24일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종문 차관은 동북아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세종연구소 및 한국핵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협력 현황과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역내 다자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진전시킬 정부당국자와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 및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KIIF**